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깨달음은 변하지 않는 '쇠꽃'과 같다

마음씨 타령 ②

경우에 따라서 이 글자 쓸 때가 있고 이 글자 쓸 때가 있고 이 글자를 쓸 때가 있겠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우리 성품을 알면은 법을 알아 버려. 마음을 알면은 성품을 알아버려. 법도 알아 버려. 부처를 알면은 마음도 알아버려. 성품도 알아버려, 한문으론 글자 네 개지만 실에 있어서는 한가집니다.

그러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 어즈버야 온 누리는 불가사의라. 사실로 뻔히 육안, 살눈으로 봐서 한계가 많습니다만, 참말로 불가사의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제일 첫째 우리 몸뚱이부터 불가사의입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얘기懺습니다만 몸뚱이부터 불가사의입니다. 내 몸이다 해서 그렇지 사실 이거 내 소유물도 아니고 내 관리물밖에 안 되는 겁니다만, 조직된 이 이치를 보면 팔다리가 있어. 두 손이 있어. 눈이 있어. 코가 있어. 이거 참 불가사의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불가사의한 것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놈이 말이죠 맘대로 이걸 굴려. 손을 들려면 손을 들어. 손 자체가 드는 거 아니거든요. 어디 걸어가고 싶으면 이 발 자체가 걸어가고 싶어서 걸어가는 것 아니거든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성품자리 마음자리 법자리 불자리, 이 자리가 이렇게 걸어가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하니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가사의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머리가 아파서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만. 지금 괜찮아요. 어제 좀 몸이 불편했었는데 병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지금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이놈을 빌어서 무정물을 빌어서 얘기하는데, 이 자리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고, 이 법 자리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고, 마음자리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고, 부처자리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습니다. 아 이거 굉장한 겁니다. 흉악한 겁니다. 이 자리가. 아닌 게 아니라 여기 따라서 우리가 성품은 이렇고 이렇다 법은 이렇고 이렇다 마음은 이렇고 이렇다 부처는 이렇고 이렇다. 이건 깨달은 각자를 뜻하는 건데, 부처라 해도 좋고 깨달은 이, 이래도 좋습니다. 그러하니 이 불가사의한 것을 무엇에 비유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불가사의 한 것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데 별도리 없습니다. 이걸 표현하려면 별도리가 없어요. 천 가지 만 가지 말은 가져와도 이 불가사의한 이 자리를 표현 못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의 심성으로 봐서는 지화자 좋을씨고 쇠꽃이랄까. 이걸 갖다 쇠꽃, 꽃은 꽃이라. 쇠는 오래 오래 변하지 않는다 이 의미거든요. 참 좋다 말이죠. 그러하니 이걸 갖다 쇠꽃이라고 할까 이 말입니다. 성품이니 법이니 마음이니 부처니 이런 거 치워 두고, 잠깐 옆에 밀어놓고 이것을 쇠꽃이라고 이름을 지을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름들 하나씩 지어 보세요. 이거 마음씨타령이거든요. 이거 하나씩 지어보면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하니 여러분도 지으려면 얼마라도 있습니다. 이 쇠 철자를 놓은 것은 변치 않는다는 것. 보통 꽃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

> **깨달음을 '쇠꽃'에 비유 해볼까요?**
> **쇠 철자는 변하지 않으니 말이죠**
> **여러분 마음마다 이름을 지어보세요**
>
> **없어질 것도 없고 속한 것도 아니고**
> **산하대지 나투고 명암 나투지만**
> **그 자리 공한 자리임을 아세요.**

녁에 떨어지거든요. 하니까 좀 섭섭해, 그러나 떨어지는 것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피어도 피는 것이 아니겠지마는 참말로 말로 표현할 것 같으면은 쇠꽃이랄까. 이 마음은. 그렇다면 성품은 법이고 마음은 부천데, 그럼 성품이니 법이니 마음이니 부처니 이런 말 싹 치워놓고, 그럼 말을 한 번 해 보자 하는데 있어서는 쇠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침에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스님이 마조대사에게 물었어요. 스님, 열반이 무엇입니까? 열반이란 건 원명하여서 고요적적한 자리거든요. 원적한 자리거든요. 그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유위법도 아니고 무위법도 아니거든요. 열반 그 자리가. 그대로 텅 틔어서 산하대지를 나투었다 하더라도 역시 모습으로 나투긴 나퉜지만은 텅 트인 성품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성품자리에서 산하대지를 나툰 것이거든요. 그러하니 그 열반자리를 구하려면 꼭 허공만 걷어잡을 것이 아니라 나무나 돌을 걷어잡아도 나무나 돌 그 자리가 텅 빈 자립니다. 텅 빈 자리에서 그런 형체를 이룬 것인데 그런데 어떤 것이 열반입니까? 이래 물었단 말이지. 급함이니라 이랬어요. 아니, 어떤 것이 열반입니까 물었는데 급한 것이니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택도 없는 말이라 말이에요. 어떤 것이 성품입니까 어떤 것이 법입니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쇠꽃이니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법성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그야말로 없어질래야 없어질 것도 없고, 있는 데 속한 것도 아니고 없는 데 속한 것도 아니다. 그러하면서 산하대지를 나투고 명암을 나투어. 밝고 어두운 걸 나투어. 선악을 나투어. 범성을 나투어.

그러나 그 자리는 공한 자리다. 이건 대강 아는데. 쇠꽃이라 해도 되거든요. 그 전에 설명을 한 번 했었기 때문에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열반이 무엇입니까. 급함이니라 이러니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러니 어떤 중이 물었는데 이름도 없어요. 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을 보라. 기가 막히죠? 이거 볼 관(觀)잡니다. 볼 견(見)자가 아니고 이 볼 관자는 지나가면서 쓱 한 번 보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 관자가. 그러니까 본단 말도 볼 관자 볼 시자 살필 찰(察)자, 많습니다. 볼 관자. 이삼십 가지 될 겁니다. 보는 것이. 그러니 우리말이 좀 모자라요. 볼 관자도 본다. 볼 견자도 본다. 볼 시(示)자도 본다. 똘똘 뭉쳐서 넘어가지만 이 글자 다 다릅니다. 좌우간 어쨌든지 슬쩍 보고 지나가는 걸 갖다가 많이 씁니다. 이전 어른들이. 우리도 역시 그렇게 봐야 되겠죠? 물을 한 번 슬쩍 보라. 열반이 무엇입니까. 급한 겁니다. 택도 아닌 것이거든요. 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을 보라.

이거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이전 성현들의 말을 이렇고 이렇다 이런 법이 아닙니다. 또 그리 할 수도 없습니다. 이 급할 급자를 갖다가 내가 설명을 해 놨죠? 하지만 마조대사의 뜻과 내 뜻과 틀려도 괜찮아요.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보림선원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세상 자유롭게 보는 눈 '출세간안'

16-1. 사홍서원(四弘誓願)

철학자나 불교인 중에는 엉뚱한 관념론자(觀念論者)가 있어 현실을 부인하고 이를 경시하는 이가 있는데 이런 것은 큰 잘못이다. 우리가 남에게 빚을 얻어 썼으면 그 빚을, 물건을 빌렸으면 그 물건을 돌려주어야 한다. 우리의 경제생활 현실 국가에 있어서의 법률적 행동, 이런 것이 모두 육안의 세계다. 물상학적인 자연 현상이 모두 육안이 관여하는 경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물질의 세계와 원인과 결과가 있는 모든 현상은 이를 무시할 수 없다. 윤리 사회에서 저지른 그릇된 일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악의 결과에 대해 형의 양을 매겨 벌을 준다. 나쁜 일 한 사람은 징역을 산다. 국가에서 이런 일, 아니 하면 이를 응징할 도리가 없다. 국가가 정치적으로나 또는 법률적으로나 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개인의 행동을 논평하는 것은 육안의 경계에 의거해 있다. 그러니까 현실을 바로 보고 현실문제는 어디까지나 합리적으로 따지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

둘째는 천안(天眼)이다. 혹은 심안이라고도 하는데 미(美)와 추(醜)를 가려 볼 줄 아는 눈이다. 정신적인 감각 이를테면 미와 예술을 감상하고 또 이를 만들어 내는 높고 오묘한 안목(眼目)이다. 우리는 아름다운 상상(想像)을 통해 예술을 감상한다. 음악을 듣고 음정의 변화에 따라 기쁨, 슬픔, 울분, 통쾌한 것, 성스러운 것, 소박, 경쾌미 같은 것을 느끼지만 이런 것은 음 자체만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상상으로 스스로 만들어낸 감정인 것이다.

미술도 마찬가지다. 구상화든지 추상화든지 간에 화면을 통해 질서와 변화와 센세이션을 감득하고 자유로운 상상의 세계로 날아다니게 한다. 이렇듯 천안으로서 예술을 감상한다.

앞의 육안의 세계는 어디까지나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정량인과적(定量因果的)인 것이지만 천안이 관여하는 예술의 세계, 다시 말하여 그림이나 음악에서 우리가 느끼는 아름다운 상상은 부정량인과적(不定量因果的)인 것이다. 원인과 결과가 꼭 같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철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흰 종이에 묵화를 칠 때 선을 긋고 점을 찍어 줄기와 꽃이 되고 매화가 그려진다. 붓으로 점을 자꾸만 찍거나 채색을 한다고 해서 무한량 해 놓고 보면 그림도 아무것도 안 된다. 그것은 부정량인과적이며, 어떤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이 한계라는 것은 미묘한 예술 감각, 그러니까 천안이 작용하는 것이지 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셋째는 혜안(慧眼)이다. 앞의 육안과 천안은 우리가 보통 세간에서 보는 바로서 이러한 관찰을 세간안(世間眼)이라고 한다. 우리의 의식은 세간으로서 사물을 판별한다. 그런데 혜안과 법안(法眼)은 이를 출세간안(出世間眼)이라고 한다. 유한한 상식의 사회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벗어난 진리의 세계에서 해행(解行)하는 것이다.

> **육안과 천안의 관찰은 '세간안'**
> **우리 의식은 세간으로 사물 판별**
> **혜안과 법안은 '출세간안'으로**
> **진리의 세계 해행하는 것이다.**
>
> **현실의 차별 꿰뚫어 보고**
> **참된 것 찾아 바른생활하려면**
> **혜안이 열려 있어야 한다**
>
> **이렇게 되면 아집 부셔버리고**
> **자유로운 생각 하게 되어**
> **참된 평등관을 갖게 된다**

바른 인식으로써 하나와 다른 것을 식별하고, 판별하고 선택하는 행위의 주체적인 안목이다. 그러므로 세간안이 현실의 차별을 꿰뚫어 보고, 참된 것을 찾아내어, 바른 생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이 혜안이 열려야 한다.

혜안이 한번 열린다고 하면 나라 하는 것이나 내 것이라고 하는 아집(我執)에 옹색하게 붙들린 지경에서 활짝 티어 곡견(曲見)을 부셔 버리고 평등한 처지에서 자유로운 생각을 하게 되어 대사회(大社會)의 같은 한 구성원이라는 의식을 갖게 된다.

누구나 다 같이 원인을 구성하는 한 인자(因子)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나 남이나 다 이와 같이 왔구나 하는 참된 인식을 얻어 평등관(平等觀)을 갖게 된다.

넷째는 법안(法眼)이다. 참된 인식이라든지 진리에서 볼 때 평등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결코 술에 술탄 듯, 물에 물 탄 듯 똑같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평등의 개별적인 공용성(功用性)을 갖고 있다. 벽이나 기둥이나 대들보나, 서까래나, 기와나, 종이나, 문종이나 구두장이나 부엌이나 이와 같은 제가끔 작용하는 그것을 하나하나 다 알아보는 관찰력이 법안이다.

대통령은 제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란 우리의 국가사회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한 기관의 자리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으로서 볼 때는 대통령이나 우리나 다를 바 없다. 일하는 것으로 보아도 아무런 다른 것이라곤 없다. 그분은 그런 자리에서 특수한 사무가 있고 우리에게는 각자의 처지에 따라 일반 국민으로서, 제가끔 종사하는 생업의 사명과 독특한 공용성이 있는 것이다.

다섯째는 불안(佛眼)이다. 이것은 매우 넓고 깊어 부처의 눈이라는 것이다. 불안은 궁극의 막다른 인식이기에 깊은 것이며 또 넓다는 것은 이것이 육안, 천안, 혜안, 법안의 넷을 통틀어 갖추었으며 이들을 자재로이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현실과 예술 세계와 학문과 또 철학을 연구하는 각자에 딸 벽창호가 되어 담을 쌓고 고립되기 일쑨데 현실을 떠난 예술이나, 철학이 없는 학문이나, 현실을 떠난 철학이란 것이 편벽되고 천박해지고 환상에 병들기 쉬운 것이다. 현대문화의 병은 이렇듯 각자가 전문 의식에 사로잡혀 벽창호가 되어 서로 담을 쌓고 전체의 연관을 상실한데 기인하는 것이다.

불교의 학문은 철학보다도 깊은, 어떠한 사회학 보다도 범위가 넓은 것이어야 하며, 또 항상 육안의 현실에 뿌리를 박고 있으므로 튼튼한 것이다. 육안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불안, 법안, 혜안, 천안의 일관된 깊이를 지닌 것이기에 통찰력과 정밀한 관찰이 따르게 마련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불교달마조계종 미륵달마 경신 도통회 총본산 이전법회

귀의삼보 하옵고 그동안 본 종단을 아껴주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 사부대중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반 오는 11월 16일 음 윤 9월 24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인천 부평시장입구 3층 본종단 용천사에서 이전법회를 영산범패 대제를 봉행하오니 두루 동참하시어 가정 사업 출세 성공 통솔 진급등 모든 악연을 풀어 하시고자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옵고 특히 금년 9월 윤달 든 해는 각종 장애를 일으키는 조상천도 구병시식 대운 맞이를 봉행하오니 소원성취하소서.

거부장지로 사는 달마구입처 : 태일 031)505-5529/010-9292-3110

금년 윤달 든 해는 효성으로 부모조상 산소이장 상석 화장 사초 등을 모시는 해이므로 구랑신 제도법을 상담하시어 집안불화 사업실패 건강질병 사암사찰 창건 중수 하실분은 구랑신에 철퇴방지법과 팔자에 맞는 좋은 이름이 내 운명을 좌우하는 작명개명 상호 아호 불명 신생아 작명으로 우환질병을 소멸하소서.

본 종단에서는 누구나 성불득도. 비구니 보살들도 사갈려 용녀와 같이 성불할 수 있는 달마선법 마음수련으로 잠자고 있는 두뇌와 오장 육부 질병을 예방 수재 천재 고시합격 평생 직업에 자격증 받아 구애받지 않는 인류 스승법. 성불득도 하시옵고 풍수지리 및 동양철학 특별강의 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 전철 1호선부평역과 7호선 부평구청역 하차 2번출구**
부평시장 정류장 약 5분 ~ 8분 소요 3층 용천사 법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 **봉불식 동참자선물** ▶ 원담 큰스님 친필,본약사정법1점,금강다라니, 삼재다라니,넥타이1점,만사형통거부장자되는 부적을 함께 드립니다.

2014. 11월. 16일. 일요일 10시 30분

전화 032)505-5529. 502-6625. 010-9292-3110.

천지공사 미륵달마 경신도통회총본산.사) 세계불교 달마종 태양의 집.
사) 대한불교 달마조계종 총본산 전국신도회. 신도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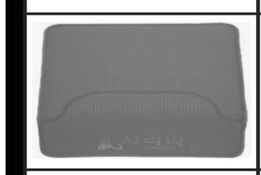
종정 환성 천룡진인 태일대종사 합장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쑥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 (소장 : 처명)